

개혁틀 '공감' ... 성과는 '절반'

조계종 스님들이 보는 '조계종 현주소'

교육원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조계종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설문이 개혁종단이 펼쳐 온 각종 사업에 대한 일선 주지스님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종단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재검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94년 개혁불사에 대해 '보통'(38.1%)과 '비판'(17.6%)적인 견해가 '공감'(42.1%)한다는 쪽보다 많다는 것은 그동안 진행해 온 개혁사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을 끈다. 종단현안과 관련한 질문 대부분에 대해 '보통'이라는 견해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기울 수도 있으나, 일반 정서상 '보통'이라는 의미가 '그저 그렇다'는 쪽에 가까운 것임을 감안하면 결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유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총무원의 주지 인사 행정과 분담금 공적성 여부, 사찰 운영 및 신도 교화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분담금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긍정하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이나, 총무원의 주지인사 행태에 대한 불만이 만족한다는 견해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 그 예다. 또 종단이 추진해온 신도 종단등록사업이 시행 2년이 지나도록

17.2%나 되는 공감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스님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승려 노후복지 대책'이나 '신도교육과 조직화'를 꼽은 것도 일선 스님들의 욕구와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승가교육체계 평가에서 불만족도가 4.8%에 불과한 것은 종단교육체계가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육성방향을 추진하다 일선 강원의 반발로 유보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의외다. 출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89%), 행사교육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며, 행사교육원을 상설화해야 한다(84.9%)는 목소리가 높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종단의 가장 시급한 현안 제1위로 '승려노후복지대책'이 꼽힌 것은 노후복지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주지직 분쟁과 주지 전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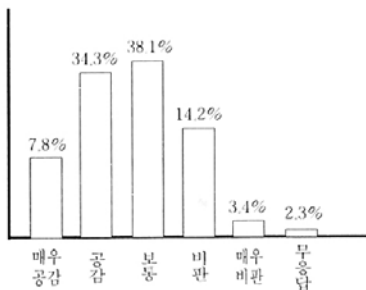
승려 노후복지·신도교육 '과제' "출가기준 엄격해야" 89% 강원정비 의외로 찬성 많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출가자 배출이 양보다 질에 우선돼야 한다는 것과, 소규모 강원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은 결국 양질의 교육을 통한 승려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규모 강원 정리에 대한 높은 찬성률은 지난해 교육원이 주요강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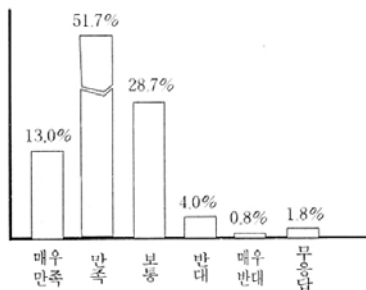
삼보정재의 사유화 문제가 풀이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심하고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만 승가의 청정성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화두를 제시한 셈이다.

종단미래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49.2%)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나 '보통'(26.8%)과 '비관적'(18.2%)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상당수 스님이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종단의 능력과 노력에 신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4년 종단 개혁불사에 대한 평가



◇현행 승가교육체계에 대한 평가



이밖에도 사유재산 소유금지에 63.1%가 찬성을, 29.1%가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문종 및 은사제도에 대해 긍정적(32.6%)이라는 응답보다는 부정적(57.6%)이라는 견해가 많았으며, 승가의 신분제에 따른 의복구분도 찬성(69.7%)이 많았다.

한명우 기자



올 '만해상' 수상자 발표

문학상 - 고은시인
평화상 - 김순권박사
포교상 - 성일스님

작품활동을 한 고은시인은 생명존중 사상, 자유·평등사상을 시세계에 구현, 만해정신을 계승한 인물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고은시인은 "만해스님을 생각하며 문학을 해온 탓에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만해스님의 치열한 삶과 시세계를 비판적으로 수용, 계승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만해 한용운스님의 불교사상, 평화사상, 예술혼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만해사상심천선양회(회장 명호근)가 제정한 제2회 만해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수성)는 3일 △문학상-고은시인(본지 논설고문) △평화상-김순권박사(경북대 석좌교수) △포교상-성일스님(화성신승사주지) 등 3개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장 및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28일 세종문화회관.

심사에는 도후(신승사 주지) 정후(불교신문사장)스님과 김재홍(경희대) 정병호(동국대)교수가 참여했다.

지난해 인물로 본 한국현대사사(만인보) 15권을 펴내는 등 왕성한

육수수박사 김순권교수는 17년간 아프리카에서 기아난민 구제에 헌신, 노벨상 후보로 4번이나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 최근에는 북한을 방문 평양과 평안남도 일대의 협동 농장을 둘러보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6종의 씨앗을 가져왔다. 25여년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이 인정돼 수상하게 된 성일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응당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힘쓰겠다"는 포부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윤기석 기자

수상자 양력

고은시인	김순권박사	성일스님
△1933년 전북 군산 출생 △58년(현대문학)에 '배결핵' 등이 추천돼 등단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민족예술인총연합 의장 역임 △주요저서-시집(피안감성)(60), <문의마을> (서사)(74), <만인보>(86~97), 소설(화일경)(91), <나 고은>(93) 등	△1945년 경남 유주 출생 △미 하와이대 박사 △나이지리아 육수수박사 부회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방제네트워크 지도위원 △국제열대농업연구소 국제협의회장 △스페인 국제과학재단 자문위원 △아프리카 국제환경운동 자문위원	△1944년 경북 영양 출생 △63년 해인사에서 출가 △73년 어린이·청소년 포교 시작 △신승사 청소년수련원 원장 △94년 포교대상 제정 △주요저서-『불을 삼켜 주주소서』(82), 『어린이불교학교 지침서』(94), 『신도포교 지침서』(96)

월 이같은 지시에 따라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해 송회장이 사퇴의사를 굳혔음을 시사했다.

송회장이 거듭 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은 신도교무금 적립금 일부의 중앙신도회 운영비로 지원, 수익사업을 위한 여행사 설립 등을 포함한 총무원장과의 모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송재건회장 비공식 사퇴의사 거듭표명 창립 1년도 못돼 운영한계 표면화

또 총무원의 지원 한푼없이 지난해 송회장이 중앙신도회 운영비로 4억여원을 내놨으나 임원회비는 3천만원에 머물러 언제까지 '밀밭진 독에 물붓기'를 할 것인가는 회의도 사퇴 쪽으로 기울어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기자회견에서 "총무원과 공동으로 신도회를 운영한다는 약속을

받고 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중앙신도회 관할부서장인 총무원장 해창수님은 송재건회장의 사퇴 의사 표명과 관련 "사석에서 한 얘기를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진제하고 "지금 송회장이 사퇴하면 중앙신도회가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에 사퇴한다면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만약에 송회장이 사퇴하면 대행계제가 오히려 낫다"고 말해 사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월주 총무원장 송병 이후 2년여의 산고 끝에 탄생한 중앙신도회가 다시 좌초하느냐, 아니면 잠시의 장애물을 만난 것인지를 판단은 이른다. 그러나 중앙신도회와 총무원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시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성은 기자



"중앙신도회 앞길 심상찮다"

"1년 동안만 맡겠다"며 공식석에서 몇 차례 사퇴의사를 밝힌 조계종 중앙신도회 송재건회장이 창립 1주년을 맞는 3월 이전에 사퇴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다. 송회장은 지난해에도 한 사석에서 사퇴 얘기를 또 꺼냈다. 송회장이 공식적인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 화성 신승사에서 열

렸던 전국신행단체대표자 수련회에서였다. "임기의 절반인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에는 새해인사차 월주 총무원장을 만나 사퇴의사를 전했다. 물론 월주스님은 임기(2년)를 채워줄 것을 권유했다. 송회장은 이와 함께 신도회 관계자에게 마땅한 회장 적임자를 찾아보라는 지시도 했다. 이 관계자는 5일 "지난해 12

입춘이 지났다. 계절은 어김없이 봄을 준비하는데, IMF 한파는 언제쯤 봄을 감지할까.

"발명왕 에디슨은 67세때 집에 불이나 잤던데가 났어요. 순식간에 모든것을 다 잃었죠. 그러나 그는 3주만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것이 원동력이었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전파위복입니다."

"신바람 건강법"을 외치는 황수관 교수(연세대)는 IMF한 파를 넘을 수 있는 신바람을 역설한다.

"좋은 시절엔 신바람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요즘 신바람나는 일은 없지만 위기에 닥쳤을 때 신바람을 일으켜야 해요. 이 난관의 저편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데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지 않겠어요. IMF 스트레스 보다 더 무서운것은 '절망'입니다."

신바람이 밝음이고 건강이라하면 절망은 어둠이고 질병이다. 우리는 늘 건강해야 한다. 특히 IMF 파고를 넘으려면 전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이란 단순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안녕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적안녕'과 역동적인 개념을 건강의 정의에 포함시킨 현재개 정안을 집행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1월24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영적안녕'이란 곧 마음의 평화이다. 불교의 마음다스리기는 더없는 '영적건강' 관리법이다. WHO가 붙이고의 가르침을 건강개념으로 공인한 셈이다.

"삼계의 모든 것은 오직 일심의 나타남이다."(화엄경)

"一心이 청정하면 다" (유마경)

국토청정'은 신체적 영적 사회적건강은 물론 깨달음의 세계다. 불교는 이미 8만4천법문과 108배, 참선 등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해왔다. 자칫 좌절하거나 절망하기 쉬운 IMF시대에 사찰부터 시민선방등이 늘고있고, 불안한 마음을 씻으러 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국민건강 처방으로 활용된다면 우리사회에 희망의 에너지가 분출돼 IMF파고를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목어

'영적 건강'

현대대중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취급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상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된 불교의식의 숙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강초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6기생을 모집합니다.
-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8년 3월 7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와 1인
한글불교의식 I (상반기) : 아침·지니으로 행하는 예성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 장엄인물
한글불교의식 II (하반기)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 (1) 일반의식, 장례의식 (2) 임종·매장·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전도를 위한 천도의식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 성규반 50명
지원자격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포교사 취득자, 포교당 운영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판 사진 3장
원서교부·접수 : 98년 2월 14일(토) ~ 3월 6일(금)
강의일시·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 4. 입학금** : 일십만원
- 5.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 (☎732-1206~8 / FAX 732-1207)
- 6.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포교현장의 전법사양성

능엄경, 아함경 대강좌!

능엄경 : 송찬우 교수(승가대) | 아함경 : 최봉수 교수(동국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 楞嚴十義 ◆

- ①色 (일곱 군데에서 마음이 있다고 친술함) (여덟 가지 돌려보내는 예를 통하여 견을 밝힘)
- ②受 (근원으로 들어가 한가지로 힘)
- ③想 (여섯가지가 풀리면 곧 하나만도 없거림) (조멸이 그들의 원통을 저마다 선택하여 피력함)
- ④行 (능엄주의 청정도 모용을 실행) (보살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단계들을 실행)
- ⑤識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장애는 모두 오용에 의한 망상임) (그 망상을 세밀하게 3가지로 나누어 실행)

● 출가수행자뿐 아니라 재가수행자들도 한번쯤은 꼭 꼭독해야 할 경전 능엄경! 지행합일의 실천수행의 경전, 신학·교학·밀교를 융합시킨 경전!

- 1) 장니카야 - 남방의 장야함
- 2) 중니카야 - 남방의 중야함
- 3) 상용니카야 - 남방의 잡야함
- 4) 중지니카야 - 남방의 중일야함
- 5) 소니카야 - 남방의 잡장
- 6) 율장개설

● 2600년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을 필요한 원전에서 적절한 양으로 선별함!

● 불교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은 불교가 어려운것이 아니라, 불교가 해결하려는 우리 인생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1. 지도교수·법사 : 무전장수님의 교수·스님 14인 강의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모집인원	지원자격
정규반 (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봉신반 (30명)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③ 포교사취득자
	④ 과목별 이수 희망자

3. 개강일시 : 98년 3월 2일(월)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11과목 이상 이수자에게 연구원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교육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동진갤러리 4층
문의전화 : 732-1206~3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김재일